행동의 이유

(요7:1~9)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행동의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955년 12월1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 몽고메리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로사라고 하는 흑인여성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올라탑니다.
요금을 내고 버스에 올라탄 이 로사가, 유색 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됩니다.
정류장을 거치면서 자꾸 백인들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정류장에 가서는 급기야 여러 명의 백인이 함께 타면서, 백인 좌석이 꽉

차가지고 두 세 명의 백인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블레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버스기사가 자리에서 일어 나가지고 유색 칸이라고 붙여놨던 그 팻말을 떼어서, 로사가 앉아 있는 그 뒤쪽만큼으로 그 팻말을 갖다 다시 붙이고는, 그 중간에 있었던 흑인들보고 다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네 명이 앉아 있었는데 세 명의 흑인들은 버스기사의 말을 듣고 뒤로 움직이는데, 이 40대 초반의 흑인여성 로사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한 대화가.
이 버스기사 제임스 블레이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뭐 별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로사가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대화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이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경찰을 불러서 로사가 체로되어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몽고메리 시 조례 6장11절에 인종분리에 관한 법을 어겼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됩니다.
그랬다가, 유색 칸이라고 하는 팻말이 나중에 옮겨졌다고 하는 정상참작이 되어서 풀려나는데, 이날 저녁 35,000장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위한 유인물을 만들어 내고, 382일 동안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2월1일에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월5일에 흑인들로 이루어지는 민권운동을 위한 몽고메리 진보협회가 만들어집니다 .
이 몽고메리 진보협회에 첫 번째 회장으로, 젊은 흑인 목사님이 선출이 되는데, 이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르틴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전역에 흑인인권, 인권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궁금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는 너의 행동에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로사가 대답합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갈등이 순간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몽고메리의 시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도 유색 칸에 앉아 있었는데, 유색 칸의 팻말을 옮기면서 백인들을 앉히려고 하는 백인기사에 저항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왜 안 일어났을까? 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까? 이 평범한 흑인 아줌마가.
다른 세 명의 흑인은 움직이고 있는데…
자! 백인기사 아저씨의 행동의 이유, 움직인 세 명의 흑인들의 행동의 이유, 움직이지 않은 이로사 아줌마의 행동의 이유.
나는 지금 왜 안 움직이고 있고, 나는 지금 왜 움직이고 있고, 나는 지금 왜 유색 칸이라고 하는 칸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있고, 나는 지금 왜 밥을 짓고 있고, 나는 지금 왜 직장에 가고 있는 것인가?
행동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행동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악하지 않다' 구분을 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오늘 본문에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세상의 일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라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 중에 한 명절이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형제들,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 밑에서 난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나 시몬이나 요셉이다 유다다, 마가복음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형제들과 옥신각신하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논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왜 갈릴리에 머물러 있느냐?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일을 해서 드러내라,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이 없다, 갈릴리 촌구석에 왜 있느냐? 올라가라.'
명절이니까,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고 규칙이거든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명절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 나는 아직 그 결정이 꽉 차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안 올라간다, 아직은 안 올라간다.
이 명절에는 아예 안 올라가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올라가니까 너희는 올라가려면 올라가라 하면서 옥신각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장면을 왜 이렇게 요한이 7장 첫머리에 기록을 했을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복음사건 속에, 초막절의 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초막절의 참 의미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복음사건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초막절이 뜻하는 바가 삶에서 나타나야 되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복음이 포함하고 있다.' 그 초막절의 의미가 복음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재생되어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그 옛날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지내던 40년 광야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냐 하면, 이게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쯤이고, 이 사람들의 종교력 유대달력으로 말하면 7월15일부터인데, 잘 차려져 있는 집,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홀이 있고 그래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딱 틀이 갖춰진 집을 떠나서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엉기성기 초막을 지어놓고 8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광야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생활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초막을 통해 기념을 하는 걸까요?
바로, 행동의 이유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 때 이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이 이유가 되어서, 그 바로왕의 명령이 중간의 관리들을 통하여 전달되면, 그 명령을 따라서 노예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사회도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관습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관습은 있지마는, 이 허허벌판 모래사막 위에서 그 관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어먹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요청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회적 관습과 규칙도, 그 어떤 사회 조직도 이들에게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이 움직일 때 가고 서면 서고, 행동의 이유가 되어 지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의 행동의 이유가 되었던 시간이 바로 광야생활 속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에요.

오늘 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때.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때가 뭐냐 하면 행동을 할 때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액션!' 하지 않습니까, 영화 찍을 때? 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동의 때가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대로, 진영을 갖추고 짐을 싸서 움직이고, 만나가 내려오면 가서 주어다 먹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행동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던 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초막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 초막절을 맞아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일을 갖고 싸워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규정인데.
주님께는 규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앞서 계신 겁니다.

형제들은, 오순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에는 그냥 규정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관습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규칙을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습과 규정과 규칙보다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규칙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고 관습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규칙과 관습과 규정과 이 세상에서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버스기사 아저씨가, 뒤로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보다 앞서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규정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 때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초막절이라는 달력상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고 규칙이지만, 그 규정과 규칙에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규정에 앞서서 만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라고 하는 지시를 나한테 명확하게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러한 것과 연관 지어서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한 겁니다.

왜 악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관습과 규칙과 규정과 삶의 판에 박혀서 정해진 틀, 그 틀대로 우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 닦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그리고 출근하고 눈 비비면서 아무 정신없이 꽂혀있는 서류철에서 서류 꺼내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이 틀, 이런 모~든 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이렇게 관습과 규정과 규칙과 이 모든 것에 짜여 져 내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 이 사회자체를 출애굽 하듯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기억하게 될 때, 그 분과 함께 관습과 규정과 규칙과 삶에 정해진 틀에 의해 짜여 져서 내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죽어서 빠져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규칙으로 매어 있고, 규정으로 매어 있고, 관습으로 매어 있고, 삶의 정해진 틀로 routine 한 틀로 매어 있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짜여 져 있는 이 사회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기

억하고 죽게 되면, 빠져 나오게 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회의 요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동의 지시가 나오고, 행동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손끝과 발끝으로 움직이게 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 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습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움직이고, 삶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말처럼,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routine 한 삶의 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점을 다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오시는데, 옆으로 비켜 서가지고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악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관습과 규정과 규칙과 삶의 틀 뿐만 아니라, 내 자식 때문에 행동하고,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행동하고, 내 건강 때문에 행동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행동의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살해 버리는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해 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로사 아줌마가 기사의 질문에 답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네 행동의 이유가 뭐냐?'
아~무도 로사 아줌마의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범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관습과 규칙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유색 칸이라는 팻말을 뒤쪽으로 옮겨서 일어나기를 요구할 때, 백인들 두세 명이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로사 아줌마가 앉아 있어야 되냐, 일어나야 되냐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규칙도 없고 관습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색 칸이 있었다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자, 이때 이 아줌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상태로 삶을 맞이하는 겁니다.
규정도 규칙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한 모범도 따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live 연결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해 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복음사건을 수용하게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노라.'

행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관습에 의한 것이고, 규칙에 의한 것이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고, 만나기 위해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묵살해 버리는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은 모든 행동이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선함이 있고, 선함이 있으니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악함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마음에 깊이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할 때를 채워서 움직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십자가를 보고,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됩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을 갖지 말아야 될 만큼 심각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직 나의 행동이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삶의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스케줄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 관습과 규정과 스케줄에 짜여 진 세상을 빠져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시를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